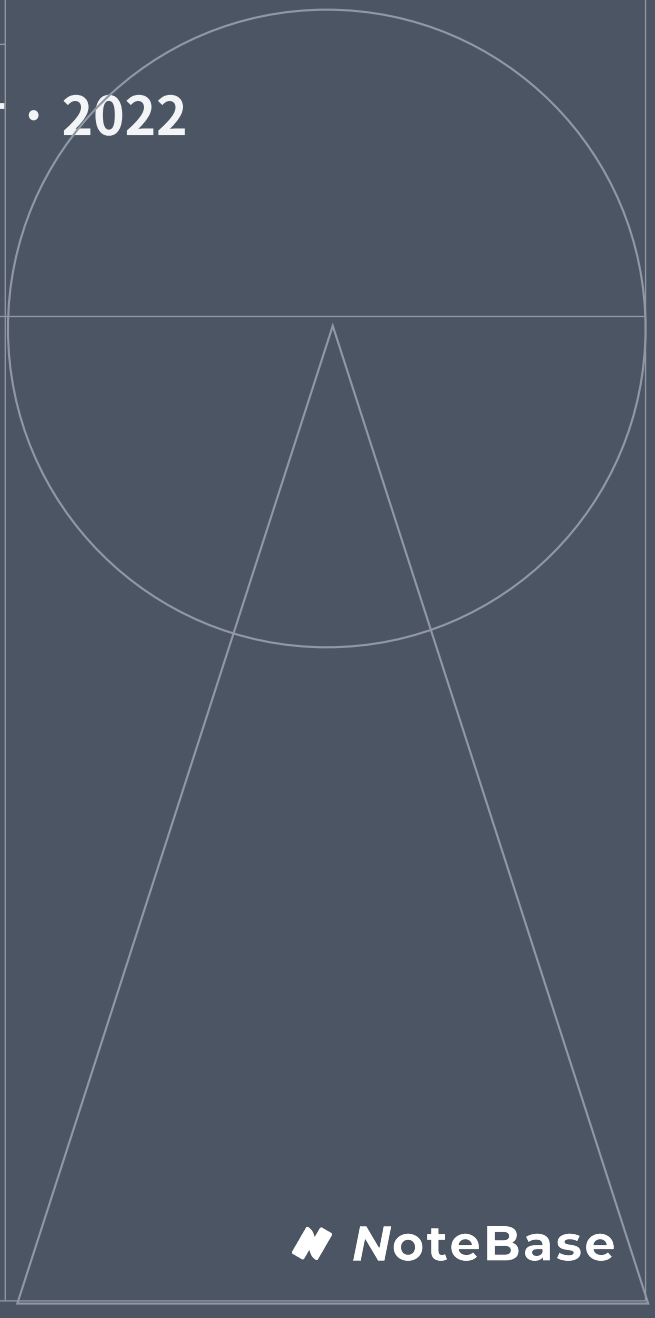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2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2

문 1. (주)한국은 보험료 지급 시 전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20×1년 재무상태표상 기초와 기말 선급보험료는 각각 ₩200,000과 ₩310,000이다. 20×1년 중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1,030,000이라면,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보험료 비용은?

① ₩520,000

② ₩920,000

③ ₩1,030,000

④ ₩1,14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초 선급보험료와 당기 지급액의 합계에서 **기말에 남아 있는 선급보험료를 차감**하면,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보험료는 920,000원이다.

계산 과정

선급보험료는 보험료를 미리 지급하고 아직 보험 보장을 제공받지 않은 부분으로, 자산에 해당한다. (주)한국은 지급액 전부를 자산으로 기록하므로, 결산 시 **당기에 보험 보장을 제공받은 부분**을 자산에서 줄여 보험료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초 선급보험료 200,000원에 당기 지급액 1,030,000원을 더하면 1,230,000원이다. 이는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부분과 기말에도 자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의 합계이다.

기말 선급보험료 310,000원은 아직 비용이 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위 합계에서 차감한다. 보험료 비용은 1,230,000 − 310,000 = 920,000원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다음은 (주)한국이 20×1년과 20×2년에 (주)대한의 지분상품을 거래한 내용이다. 동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20×1년			20×2년
취득금액	매입수수료	기말 공정가치	처분금액
₩1,000	₩50	₩1,100	₩1,080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이익이 ₩50 증가한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0 증가한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이익이 ₩20 감소한다.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30 감소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30은 취득원가 ₩1,050과 처분금액 ₩1,080의 차이인 **처분 시점의 누적이익**이다. 20×2년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기타포괄손실은 전기 말 장부금액 ₩1,100과 처분금액의 차이인 **₩2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매입수수료 ₩50은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금융자산은 ₩1,000으로 최초 인식하고, 20×1년 말 공정가치 ₩1,100으로 평가하므로 평가이익은 ₩1,100 − ₩1,000 = ₩100이다. 수수료 비용과 평가이익을 합하면 당기이익은 ₩100 − ₩50 = ₩50 증가한다.

②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매입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최초 장부금액은 ₩1,000 + ₩50 = ₩1,050이고, 20×1년 말 공정가치는 ₩1,100이다. 차액 ₩1,100 − ₩1,050 = ₩50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0 증가한다.

③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20×2년 처분손익은 **전기 말 평가 후 장부금액** ₩1,100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처분금액이 ₩1,080이므로 ₩1,080 − ₩1,100 = −₩20의 처분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매입수수료는 이미 20×1년에 비용 처리했으므로 다시 차감하지 않으며, 20×2년 당기이익은 ₩20 감소한다.

④ X: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20×2년 가격 하락액은 ₩1,100 − ₩1,080 = ₩20으로, 이를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처분 직전 누계액은 전기 말 ₩50에서 ₩20 감소한 ₩30이 된다. ₩1,080 − ₩1,050 = ₩30은 **취득 이후의 누적이익**이지 20×2년의 감소액이 아니다. 이 지분상품의 누적이익은 처분해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자본 내 대체를 하지 않으면 누계액은 ₩30으로 남고, 누적이익 ₩30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면 누계액은 0이 되어 전기 말 대비 총 ₩50 감소한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도 '20×2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30 감소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말 이자지급조건의 사채를 ₩951,980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채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사채발행일의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일치한다고 할 때, (주)한국이 사채의 만기일까지 3년간 인식할 총 이자비용은?

① ₩300,000

② ₩348,020

③ ₩360,000

④ ₩368,02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할인발행 사채의 총 이자비용은 **현금이자 총액에 할인발행차금을 더한 금액**이다. 3년간 현금이자 300,000원과 할인발행차금 48,020원을 합하면 348,020원이다.

계산 과정

유효이자율법에서는 매년 **기초 사채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 12%를 곱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할인발행 사채는 이자비용이 현금이자보다 크며, 그 차액만큼 할인발행차금이 상각되어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만기까지 할인발행차금이 전액 상각되므로, 3년간 총 이자비용은 현금이자 총액과 할인발행차금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현금이자 총액: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 10%를 적용**한 1,000,000원 × 10% = 100,000원이다. 따라서 3년간 현금이자 총액은 100,000원 × 3년 = 300,000원이다.

할인발행차금: 액면금액 1,000,000원에서 발행금액 951,980원을 뺀 48,020원이다. 이는 발행 시 받은 금액보다 만기에 갚을 원금이 더 큰 부분으로, **만기까지 추가 이자비용으로 인식**된다.

총 이자비용: 300,000원 + 48,020원 = 348,020원이다. 이는 선택지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②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된다.

③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 계약은 취소·갱신·변경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④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거래가격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므로,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변동대가는 기댓값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기업이 받을 대가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으로 추정한다. 특정 불확실성이 변동대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선택한 **하나의 방법을 계약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추정 결과가 유리해지도록 방법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② X: 거래가격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 기업이 직접 현금을 받더라도 제삼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거둔 금액은 기업 자신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된다'를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된다'로 고친다.

③ O: 거래가격은 **현행 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된다는 가정** 아래 산정한다. 즉,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고 계약은 취소·갱신·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갱신이나 변경의 대가를 현재 계약의 거래가격에 미리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④ O: 계약상 대가가 할인, 환불, 성과보너스 등에 따라 달라지면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동대가를 추정해야 한다. 추정 대상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이다. 금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추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NoteBase

문 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빼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더하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④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이며,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이다.

정답 2, 3번

①

재정운영표는 한 회계연도의 **정책·사업 원가와 그 원가의 회수명세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NoteBase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프로그램순원가·재정운영순원가·재정운영결과는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표시 항목**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Rmf_zrOgVvFZDnUTJUBBP1chlvqxN01.webp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UmjLkFCApPBdrLQyN9CcCsu9QQzQ0dn5.webp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QUBjnYApYQrClv_Q01iIAbxcCRRU_zZq.webp

NoteBase

③

프로그램순원가는 투입한 원가에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는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뺀 뒤** 프로그램수익을 차감한다. 선지는 원가 배부의 가감 방향을 뒤바꾸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Rmf_zrOgVvFZDnUTJUBBP1chlvqxN01.webp

④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은 각각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항목**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UmjLkFCApPBdrLQyN9CcCsu9QQzQ0dn5.webp

NoteBase

문 6. 다음은 20×1년 (주)한국의 기계가동시간과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분기별 자료이다. (주)한국은 고저점법을 이용하여 원가를 추정하며, 제조간접원가의 원가동인은 기계가동시간이다. 20×2년 1분기 기계가동시간이 5,500시간으로 예상될 경우, 제조간접원가 추정 금액은?

분기	기계가동시간	제조간접원가
1	5,000시간	₩256,000
2	4,000시간	₩225,000
3	6,500시간	₩285,000
4	6,000시간	₩258,000

① ₩252,000

② ₩258,500

③ ₩261,000

④ ₩26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고저점법으로 구한 **시간당 변동원가는 24원**이고 분기 고정원가는 129,000원이다. 기계가동시간 5,500시간의 변동원가 132,000원에 고정원가를 더하면 제조간접원가는 261,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고저점 선택: 고저점법은 총원가를 고정원가와 활동량에 비례하는 변동원가로 나누어 추정한다. 이 문제의 활동량은 기계가동시간이므로 **기계가동시간이 가장 큰 분기와 가장 작은 분기**를 고른다. 고점은 3분기 6,500시간·285,000원이고, 저점은 2분기 4,000시간·225,000원이다.

시간당 변동원가: 두 분기에 같은 고정원가가 적용된다고 보므로 원가 차이는 가동시간 차이로 인한 변동원가이다. 따라서 원가 차이를 가동시간 차이로 나눈다. $\frac{285,000-225,000}{6,500-4,000}$ = 24원/시간이다. 이는 기계를 1시간 더 가동할 때 제조간접원가가 24원 증가한다는 뜻이다.

분기 고정원가: 고점의 총원가에서 해당 가동시간의 변동원가를 빼면 **가동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가 남는다. 285,000 − 24 × 6,500 = 129,000원이다.

20×2년 1분기 추정: 앞서 추정한 원가 관계를 적용하면, 5,500시간의 변동원가는 24 × 5,500 = 132,000원이다. 여기에 분기 고정원가를 더한 제조간접원가는 129,000 + 132,000 = 261,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상품 매입 및 매출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도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총이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재고자산 감모 및 평가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고자산 수량결정은 계속기록법에 의한다)

일자	구분	수량	단가
1월 1일	기초재고	20개	₩150
5월 1일	매입	30개	₩200
7월 1일	매출	25개	₩300
9월 1일	매입	20개	₩180
11월 1일	매출	25개	₩320

① 기말재고자산: ₩3,000, 매출총이익: ₩5,900

② 기말재고자산: ₩3,000, 매출총이익: ₩6,500

③ 기말재고자산: ₩3,600, 매출총이익: ₩5,900

④ 기말재고자산: ₩3,600, 매출총이익: ₩6,5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상품의 원가부터 매출원가로 배분**하므로, 기말에는 9월 매입분 20개가 남아 기말재고자산은 3,600원이다. 연간 매출액 15,500원에서 매출원가 9,000원을 차감한 매출총이익은 6,5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원가배분 기준: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재고 수량과 매출원가를 기록한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재고의 원가부터** 판매된 상품에 배분한다. 감모와 평가손실이 없으므로 남은 수량에 해당 매입원가를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을 구한다.

7월 1일 매출원가: 판매한 25개에는 기초재고 20개 전부와 5월 매입분 중 5개의 원가를 배분한다. 매출원가는 20 × 150 + 5 × 200 = 4,000원이다. 판매 후에는 5월 매입분 25개가 개당 200원의 원가로 남는다.

11월 1일 매출원가: 9월에 개당 180원인 상품 20개를 매입했으므로, 판매 직전 재고는 5월 매입분 25개와 9월 매입분 20개이다. 11월에 판매한 25개에는 **먼저 매입한 5월분 25개의 원가**를 모두 배분한다. 이때 매출원가는 25 × 200 = 5,000원이며, 연간 매출원가는 4,000 + 5,000 = 9,000원이다.

기말재고자산: 11월 판매 후에는 9월 매입분 20개만 남는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20 × 180 = 3,600원이다.

매출총이익: 표의 매출 행에 제시된 단가 300원과 320원은 판매가격이다. 매출액은 25 × 300 + 25 × 320 = 15,500원이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15,500 − 9,000 = 6,500원이다.

기말재고자산 3,600원과 매출총이익 6,500원의 조합은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8. 20×1년 1월 1일 설립한 (주)한국의 자본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자	거래 내역
1월 1일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20(액면금액 ₩100)에 발행하고,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 ₩700을 현금 지급하였다.
7월 1일	보통주 1,000주를 주당 ₩90(액면금액 ₩100)에 발행하고,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① 1월 1일 현금 ₩120,000이 증가한다.

② 1월 1일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 ₩700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③ 7월 1일 자본금 ₩90,000이 증가한다.

④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표시될 금액은 ₩9,300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서 **주식발행 직접비용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1월의 할증액 ₩20,000에서 직접비용 ₩700과 7월의 할인액 ₩10,000을 빼면 기말 잔액은 ₩9,30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월 1일 주식발행으로 받은 현금은 1,000주 × ₩120 = ₩120,000이지만, 같은 날 직접비용 ₩7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날 현금의 **순증가액은 ₩119,300**이다.

② X: 주식발행에 직접 관련된 원가는 당기비용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한다. 1월 1일의 주식발행초과금은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인 1,000주 × (₩120 − ₩100) = ₩20,000이며, 여기에서 직접비용 ₩700을 차감하므로 잔액은 ₩19,300이다.

③ X: 자본금은 발행대금이 아니라 **발행주식 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7월 1일 자본금 증가액은 1,000주 × ₩100 = ₩100,000이다. 현금 유입액 ₩90,000과의 차이 ₩10,000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한다.

④ O: 7월 1일 발생한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0은 **기존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한다. 1월 1일 직접비용을 차감한 주식발행초과금 ₩19,300에서 ₩10,000을 빼면,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주식발행초과금은 ₩9,300이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기계장치를 ₩8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 연수합계법, 월할 상각)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를 20×3년 3월 31일 ₩40,000에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장부금액과 처분손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① 장부금액: ₩35,000, 처분손익: 손실 ₩5,000

② 장부금액: ₩35,000, 처분손익: 이익 ₩5,000

③ 장부금액: ₩45,000, 처분손익: 손실 ₩5,000

④ 장부금액: ₩45,000, 처분손익: 이익 ₩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연수합계법의 상각률을 취득일부터 1년씩 적용하면,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35,000원이고 **장부금액은 45,000원**이다. 처분대금 40,000원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므로 **처분손실 5,000원**이 발생한다.

계산 과정

1. 감가상각대상금액과 연수합계: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80,000 − 5,000 = 75,000원이다. 내용연수 5년의 연수합계는 5 + 4 + 3 + 2 + 1 = 15이다. 연수합계법은 이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잔여내용연수의 비율을 곱하므로, 취득 후 첫 1년에는 5/15, 다음 1년에는 4/15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2. 상각기간 구분: 20×1년 10월 1일부터 20×3년 3월 31일까지는 총 18개월이다. **취득일부터 첫 12개월과 그다음 6개월**로 나누어 월할 상각한다. 첫 상각률은 20×2년 9월 30일까지 적용하고, 두 번째 상각률은 2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감가상각누계액: 첫 12개월의 감가상각비는 $75{,}000 \cdot \frac{5}{15} = 25{,}000$원이다. 다음 6개월의 감가상각비는 $75{,}000 \cdot \frac{4}{15} \cdot \frac{6}{12} = 10{,}000$원이다. 따라서 처분일까지 배분된 감가상각비의 합계인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0 + 10,000 = 35,000원이다.

4. 처분시점의 장부금액: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이 없으므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다. 장부금액은 80,000 − 35,000 = 45,000원이다.

5. 처분손익: 처분대금에서 **처분시점의 장부금액**을 차감한다. 40,000 − 45,000 = −5,000원이므로 처분손실은 5,000원이다.

장부금액 45,000원과 처분손실 5,000원의 연결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30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월할 상각)에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상환의무 조건이 없는 정부보조금 ₩200,000을 수령하였다. 동 기계장치를 20×2년 12월 31일 ₩700,000에 처분한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주)한국은 정부보조금을 관련자산에서 차감하는 원가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②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0

③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

④ 유형자산처분손실 ₩15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원가차감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2년간 감가상각한 처분일 장부금액은 600,000원이므로, 처분대금 700,000원과의 차이인 100,000원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다.

계산 과정

정부보조금 차감: 원가차감법은 정부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그 효과를 감가상각비 감소로 반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차감한 최초 장부금액**은 1,300,000 − 200,000 = 1,100,000원이다.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잔존가치를 제외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100,000 − 100,000 = 1,000,000원이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1,000,000}{4} = 250,000$ 원이다. 월할 상각하며 취득일인 20×1년 1월 1일부터 처분일인 20×2년 12월 31일까지는 **24개월, 즉 2년**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00 × 2 = 500,000원이다.

처분일 장부금액: 보조금을 차감한 최초 장부금액에서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다. 따라서 처분일 장부금액은 1,100,000 − 500,000 = 600,000원이다.

유형자산처분손익: 처분대금에서 처분일 장부금액을 차감하므로 700,000 − 600,000 = 100,000원이다. **처분대금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원이며,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②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은 재평가감소액의 원칙과 예외를 서로 바꾸었다. 재평가감소액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 한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을 줄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평가모형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적용한다. 재평가일에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산정한다. 재평가하더라도 이후의 자산 사용이나 손상에 따른 가치 감소를 계속 반영하는 것이다.

② O: 재평가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한다. 다만 **동일한 자산의 과거 재평가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되돌리는 범위에서 증가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과거에 손실로 처리한 부분의 회복이기 때문이며, 이를 초과하는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X: 재평가감소액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해당 자산에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 한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하고, 초과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과거에 자본에 누적한 재평가이익을 먼저 줄이는 처리이다. 예를 들어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20만 원이고 재평가감소액이 30만 원이라면, 20만 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머지 10만 원은 당기손익의 손실로 인식한다.

④ O: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 **그 자산이 속한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여기서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성격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을 뜻한다. 유리한 자산만 골라 재평가하거나 같은 유형 안에서 서로 다른 측정기준의 금액이 혼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NoteBase

문 12.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②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④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추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현재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은 발생에 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충당부채 금액의 추정에 반영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한다. 이는 그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뜻한다.

② O: 미래에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충당부채는 현재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앞으로 영업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X: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은 발생에 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미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을 적절히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를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동일한 금액이라도 지급 시점에 따라 현재의 경제적 부담이 달라지므로,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 예상 지출액을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이는 미래에 지급할 명목금액을 보고기간 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20×1년 말 결산 중 다음 항목에 대한 기말수정분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된 기말수정분개가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20×1년 7월 1일 1년치 보험료 ₩120,000을 현금지급하고 전액 선급보험료로 처리하였다.
◯ 20×1년 1월 1일 자산으로 계상된 소모품 ₩200,000 중 12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모품은 ₩100,000이다.
◯ 20×1년 3월 1일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240,000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① ₩60,000 증가
② ₩100,000 증가
③ ₩60,000 감소
④ ₩200,000 감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말수정분개로 당기에 사용한 보험료와 소모품을 비용에 반영하고, 다음 해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수익에서 차감한다. 비용은 160,000원 증가하고 수익은 40,000원 감소하므로, 당기순이익은 수정 전보다 **200,000원 감소**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말수정분개는 현금의 지급·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을 해당 기간에 귀속시키는 절차이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비용이 늘거나 수익이 줄면 감소한다. 이 문제는 누락된 수정분개를 반영할 때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계산한다.

보험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당기 보험료는 $120{,}000 \times \frac{6}{12} = 60{,}000$원이다. 전액 선급보험료로 처리했으므로 **당기에 경과한 6개월분을 비용으로 대체**한다. 수정분개는 차변 보험료 60,000원, 대변 선급보험료 60,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0,000원 감소한다.

소모품: 기초 소모품 200,000원에서 기말 보유액 100,000원을 빼면 당기 사용액은 200,000 − 100,000 = 100,000원이다. **사용한 소모품은 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하므로, 수정분개는 차변 소모품비 100,000원, 대변 소모품 100,000원이다. 당기순이익은 100,000원 감소한다.

임대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기에 귀속되는 기간은 10개월이고, 다음 해 1~2월의 2개월분은 아직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으므로 **다음 해 2개월분을 선수임대료라는 부채로 대체**한다. 그 금액은 $240{,}000 \times \frac{2}{12} = 40{,}000$원이다. 수정분개는 차변 임대료수익 40,000원, 대변 선수임대료 40,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0,000원 감소한다.

당기순이익의 변동액은 −60,000 − 100,000 − 40,000 = −200,000원이다. 따라서 수정분개를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은 200,000원 감소하며,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당기 말 제조간접원가 과소 또는 과대 배부액은?

◯ 제조간접원가 예산 ₩130,000
◯ 예상 직접노무시간 10,000시간
◯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120,000
◯ 실제 직접노무시간 9,000시간

① 과소배부 ₩3,000
② 과대배부 ₩3,000
③ 과소배부 ₩10,000
④ 과대배부 ₩1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예정배부율은 시간당 13원이고, 실제 9,000시간에 대한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117,000원이다. 실제 발생액 120,000원보다 3,000원 적게 배부했으므로 **3,000원 과소배부**이다.

계산 과정

1. 예정배부율 계산: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미리 정한 배부율로 배부한다. 제조간접원가 예산 130,000원을 **예상 직접노무시간 10,000시간**으로 나누면 $\frac{130{,}000}{10{,}000} = 13$이므로, 예정배부율은 시간당 13원이다. 이는 직접노무 1시간당 제조간접원가 13원을 배부한다는 뜻이다.

2.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계산: **예정배부율에 실제 직접노무시간을 곱한다**.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9,000시간이므로, 배부액은 13원/시간 × 9,000시간 = 117,000원이다. 이 금액이 당기 생산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이다.

3. 과소·과대배부 판단: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120,000원과 배부액 117,000원을 비교한다.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작으므로 과소배부**이며, 그 금액은 120,000 − 117,000 = 3,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말 과소배부액은 3,000원으로,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한국은 휴대전화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다음의 거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을 ₩40,000으로 산정하였다. 다음 거래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미수이자수익 발생 ₩10,000
선수수익의 수익실현 ₩40,000
매출채권의 현금회수 ₩20,000
매입채무의 현금상환 ₩7,000
미지급이자비용 발생 ₩3,000

① ₩50,000
② ₩87,000
③ ₩100,000
④ ₩11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당기순이익에는 현금 수수 여부가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발생**을 반영한다. 누락된 수익 50,000원을 더하고 이자비용 3,000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87,000원이며, 매출채권 회수와 매입채무 상환은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다. 발생주의에 따라 **현금을 받거나 지급한 시점과 관계없이**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므로, 누락 거래가 수익·비용을 변화시키는지 구분하여 기존 당기순이익 40,000원을 조정한다.

미수이자수익 발생 10,000원: 이자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당기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미수이자라는 자산과 이자수익을 각각 10,000원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10,000원 증가한다.

선수수익의 수익실현 40,000원: 선수수익은 현금을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 부채로 기록한 금액이다. 이제 **수익이 실현되었으므로** 선수수익 부채를 줄이고 수익 40,000원을 인식한다. 당기순이익은 40,000원 증가한다.

매출채권의 현금회수 20,000원: 매출채권은 이미 인식한 매출에서 생긴 채권이다. 회수 시에는 매출채권이 20,000원 감소하고 현금이 같은 금액 증가할 뿐, **수익을 다시 인식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없다.

매입채무의 현금상환 7,000원: 현금과 매입채무가 각각 7,000원 감소하는 거래이다. **기존 채무의 상환**이므로 상환액을 새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없다.

미지급이자비용 발생 3,000원: 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당기에 이자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자비용과 미지급이자 부채를 각각 3,000원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3,000원 감소한다.

누락 거래에 따른 순이익 증가액은 10,000 + 40,000 − 3,000 = 47,000원이다. 따라서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40,000 + 47,000 = 87,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A의 20×1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단, 아래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다) 20×1년 지방자치단체 A의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20×1년 지방자치단체 A가 운영한 사업의 총원가는 ₩500,000이며, 사용료수익은 ₩200,000이다.
◯ 20×1년 관리운영비 ₩100,000이 발생하였다.
◯ 20×1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처분이익 ₩50,000과 이자비용 ₩10,000이 발생하였다.
◯ 20×1년 지방세수익은 ₩200,000이다.

① 재정운영순원가: ₩100,000, 재정운영결과: ₩360,000
② 재정운영순원가: ₩160,000, 재정운영결과: ₩360,000
③ 재정운영순원가: ₩360,000, 재정운영결과: ₩100,000
④ 재정운영순원가: ₩360,000, 재정운영결과: ₩160,000

정답 4번

NoteBase

공통 해설

사용료수익은 사업수익이므로 **사업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500,000−200,000＝300,000원이다.
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비용과 자산처분이익은 각각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이다. **재정운영순원가＝사업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300,000＋100,000＋10,000−50,000＝360,000원이다.
지방세수익은 일반수익인 자체조달수익이므로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지방세수익을 뺀** 360,000−200,000＝160,000원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재정운영표)
②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1. 사업순원가: 가목에 따른 총원가에서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총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를 뺀 것
나. 사업수익: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순원가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더하고, 다목의 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관리운영비: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나. 비배분비용: 임시적 ·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사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 가목에 따른 총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다. 비배분수익: 임시적 ·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수익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 나목의 사업수익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수익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제30조에 따른 수익을 뺀 것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7>
1. 자체조달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물량흐름과 원가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 기초재공품: 1,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50 %)
당기착수량: 4,000단위, 당기완성품: 3,000단위
○ 기말재공품 가공원가 완성도 50 %
○ 제조원가 내역

구분	직접재료원가	가공원가
기초재공품원가	₩ 4,000	₩ 14,000
당기발생원가	₩ 20,000	₩ 21,000

① ₩16,000
② ₩18,350
③ ₩40,650
④ ₩43,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를 유지하고, 당기에 추가한 작업의 원가만 더한다**. 기초재공품을 완성한 원가 21,000원과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제품의 원가 22,000원을 합하면 완성품 원가는 43,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부터 먼저 완성한다고 본다. 당기발생원가를 배분할 때는 **당기에 수행한 작업량만 완성품환산량에 포함**한다. 완성품환산량은 미완성품에 수행한 작업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값이며,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물량흐름: 공손과 감손이 없으므로 기말재공품은 1,000 + 4,000 − 3,000 = 2,000단위이다. 완성품 3,000단위는 기초재공품 1,000단위와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2,000단위로 구성된다.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기초재공품의 재료는 이미 전기에 투입되었으므로 당기 추가 투입량은 0이다. 당기착수·완성품 2,000단위와 기말재공품 2,000단위에는 모두 당기에 재료가 투입되므로, 당기 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0 + 2,000 + 2,000 = 4,000단위이다.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각 재공품의 가공완성도를 적용한다. 기초재공품은 **전기에 완료한 50%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 당기에 수행한다. 기초재공품의 추가 작업은 $1{,}000 \times (100\% - 50\%) = 500$단위이고, 기말재공품의 작업은 $2{,}000 \times 50\% = 1{,}000$단위이다. 여기에 당기착수·완성품 2,000단위를 더하면 당기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500 + 2,000 + 1,000 = 3,500단위이다.

당기 단위원가: 각 당기발생원가를 해당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눈다. 직접재료원가는 $\frac{20{,}000}{4{,}000} = 5$원, 가공원가는 $\frac{21{,}000}{3{,}500} = 6$원이다. 이때 **기초재공품원가는 당기 단위원가 계산에서 제외**한다.

기초재공품을 완성한 원가: 전기에서 이월된 재료원가 4,000원과 가공원가 14,000원을 그대로 포함한다. 당기에는 재료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남은 가공작업 500단위에 대한 원가 $500 \times 6 = 3{,}000$원만 더한다. 따라서 기초재공품 1,000단위를 완성한 원가는 4,000 + 14,000 + 3,000 = 21,000원이다.

당기착수·완성품 원가: 2,000단위의 재료 투입과 가공은 모두 당기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기 재료 단위원가 5원과 가공 단위원가 6원을 모두 적용하여 $2{,}000 \times (5 + 6) = 22{,}000$원으로 계산한다.

전체 완성품 원가는 21,000 + 22,000 = 43,000원이다. 이는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②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③ 공정가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감소하며, 부채의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한다.

④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부채의 공정가치는 **발생·인수 시 거래원가로 감소하지 않으며, 이전·결제 시 발생할 거래원가도 반영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지급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취득·창출 시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그 자산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대가에 거래원가를 더한 금액**이다.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한 당시의 거래에 기초하므로, 취득·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도 원가에 포함한다.

② O: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등의 현재가치이고, 이행가치는 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등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둘 다 **해당 기업이 예상하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시장참여자의 관점과 가정을 반영하는 공정가치와 구별된다.

③ X: 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지급할 가격이다.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의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으며, 부채의 이전·결제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원가로 인해 감소하며'는 '거래원가로 인해 감소하지 않으며'로, '거래원가를 반영한다'는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발생·인수 시 받은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하는 것은 **부채의 역사적 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④ O: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드는 원가**이다. 따라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에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더한다. 역사적 원가도 자산의 거래원가를 포함하지만 취득·창출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NoteBase

문 19. 자산별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②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③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④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자가사용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고쳐야 한다.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부수적 용역의 비중이 전체 계약에서 **경미하면**, 그 용역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하며,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사용한다. 정액법은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② X: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고, 자가사용부동산은 재화·용역의 생산·제공이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다.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부수적 용역이 전체 계약에서 경미하면 해당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임대 사무용 건물에 경비·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호텔처럼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비중이 유의적이면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③ O: 유형자산을 계속 가동하기 위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실제 부품 교체가 없어도 종합검사를 통해 종전 검사에 따른 효익이 대체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때 이전 종합검사원가 중 장부금액에 남아 있는 부분은 제거한다.

④ O: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 판매가격에서 추가로 필요한 완성원가와 판매원가를 뺀 금액이다. 이 금액이 원가보다 낮아 장부금액을 감액하면 그 평가손실을 감액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수량이 줄어드는 감모손실도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해당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까지 비용 인식을 미루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화학재료 4,000 kg을 투입해서 정제공정을 거쳐 3:2의 비율로 연산품 A와 B를 생산하며,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결합원가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의 kg당 판매가격은 연산품 A가 ₩40/kg이고, 연산품 B가 ₩60/kg이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에 따라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연산품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구분	금액
직접재료원가	₩ 250,000
직접노무원가	₩ 120,000
제조간접원가	₩ 130,000
합계	₩ 500,000

① ₩250,000

② ₩350,000

③ ₩450,000

④ ₩55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분리점 판매가치법은 **생산량에 단위당 판매가격을 곱한 판매가치**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A와 B의 판매가치는 각각 96,000원으로 같으므로, B에는 총 결합원가 500,000원의 절반인 250,000원을 배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배분 기준과 결합원가: 분리점 판매가치법은 제품이 각각 구분되는 시점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를 나누는 방법이다. 배분 기준은 **제품별 생산량 × 분리점 단위당 판매가격**이다. 표에 제시된 결합원가는 직접재료원가 250,000원 + 직접노무원가 120,000원 + 제조간접원가 130,000원 = 500,000원이다.

제품별 생산량: 4,000 kg을 A와 B의 생산비율 3:2로 나눈다. A의 생산량은 $4{,}000 \times \frac{3}{5} = 2{,}400$ kg이고, B의 생산량은 $4{,}000 \times \frac{2}{5} = 1{,}600$ kg이다.

제품별 판매가치: A는 2,400 kg × 40원/kg = 96,000원이고, B는 1,600 kg × 60원/kg = 96,000원이다. B는 생산량이 더 적지만 kg당 판매가격이 더 높아 **두 제품의 판매가치는 같다**. 전체 판매가치는 96,000원 + 96,000원 = 192,000원이다.

B의 결합원가 배부액: 전체 판매가치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은 $\frac{96{,}000}{192{,}000} = \frac{1}{2}$이다. 이 비율을 총 결합원가에 적용하면 B의 배부액은 $500{,}000 \times \frac{1}{2} = 250{,}000$원이다. 이는 ①의 250,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